광주서광중, 체험형 과학교육으로 진로 탐색

광주서광중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미래융합탐구 한마당'을 운영하며 체험 중심 과학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사진)

13일 광주서광중에 따르면 지난 10일 과학실과 강당에서 2025학년도 미래융합탐구 한마당을 열고, 학생들이 스스로 과학적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사는 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설계프로그램과 창의적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한 창작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설계프로그램에는 투석기, 롤링볼, 종이비행기 만들기 등이 포함됐고, 창작프로그램은 과학 시화, 문자 디자인, 과학 마인드맵, 환경 이모티콘, 과학 상상화 그리기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서광중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사고력과 과학적 도전 의식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교육청, '고등학생 진로캠프' 개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2일 조선대학교 서석홀과 국제관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전문 직업인과 함께하는 고등학교 진로캠프'를 개최했다.(사진)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진로캠프는 학생들이 전문 직업인과 멘토링을 통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BPW(전문직여성 한국클럽) 광주클럽이 운영을 맡아 △소방구급대원 △경찰관 △의사 △검사 △간호사 △교사 △작가 △디자이너 △언론인 △코칭 전문가 △인공지능·빅데이터 개발자 △바리스타 △영화감독 △콘텐츠 기획자 등 14개 직종의 전문 직업인과 학생 간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캠프에 참여한 전문 강사는 4~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직업 전문인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이해와 진로설계'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 성료

북한이탈주민, 후원자 등 200명 유공자 표창·운동회·장기자랑 등

광주광역시는 지난 12일 월곡중학교 체육관에서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 지원을 위해 2024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날이다.

이번 기념행사는 '먼저 온 통일, 함께 여는 평화마당'이라는 슬로건 아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서로 만나 고향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시민과 후원자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강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부의장과 자문위원, 황성호 광주하나센터장 등 200여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유공자 표창과 어울림 운동회 순으로 진행됐다. 운동회에서는 청팀과 홍팀으로 나뉜 참가자들이 열띤 대항전을 벌였고,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북한이탈주민과 가족, 후원자들이 함께할 수 있어 뜻 깊다"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조선대, 재배한 수확물 천혜경로원에 선물

조선대학교 기후위기대응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은 최근 교내 친환경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수확물을 인근 천혜경로원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온정을 나누었다.(사진)

지난 10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번 나눔 행사는 지난 5일 'CSU 기후농부학교'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단순한 농작 활동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과 교원, 지역민이 함께 자연과 더 가까워지고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조선대 교직원과 학생들은 천혜경로원을 방문해, 지난 4월부터 지역민과 함께 정성껏 가꾼 텃밭에서 수확한 상추, 깻잎, 치커리 등 쌈 채소와 수박을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조선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성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과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건축정책위원회 3기 출범

전라남도는 최근 남악주민복합센터 회의실에서 '제3기 전남도 건축정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방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

제3기 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의 다양성을 반영해 총 24명(위촉직 22명, 당연직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최일 전남도 총괄건축가가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7년 6월30일까지 2년이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위원들은 심의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위원 추천을 거쳐 총 7명의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새롭게 구성된 소위원회는 공공건축사업의 공공성, 지역성, 설계의 완성도 등을 종합 검토·심의해 전남도 차원의 공공건축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현 기자

화순전대병원 정형외과 슬관절팀,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선종근 교수

양홍열 교수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슬관절팀이 한국인의 무릎 구조 특성을 반영한 연구 성과로 과학기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13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정형외과 선종근·양홍열 교수의 논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무릎 관상면 정렬 분류 기반 무릎 형태의 방사선학적 분석'을 통해 제3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해당 상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국내 연구자들의 전년도 SCI 논문 중 우수논문을 엄선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학술상이다.

해당 논문은 보건 학술 부문 중 정형외과 분야에서 우수논문으로 평가받아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연구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릎 관절의 관상면 정렬 유형을 정밀 분석하고, 기존 서구 중심의 정렬 분류 체계인 CPAK(Coronal Plane Alignment of the Knee)을 한국형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건강한 무릎과 퇴행성 관절염 무릎 간 정렬 특성을 비교 분석해, 관절염 환자에게서 1형 무릎 형태이 가장 흔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밝혀냈다.

양 교수는 "이번 수상은 한국인의 해부학적 특성과 생체역학을 반영한 수술 정렬 전략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연구 성과다"며 "앞으로도 환자 개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인공관절 수술 전략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국형 정형외과 진료 표준 확립, AI 기반 정밀의료 연구, 로봇 인공관절 수술과의 융합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임상 연구 역량을 한층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 교수는 오는 8월부터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정형외과에서 장기 연수를 시작하며, 슬관절염과 관련된 AI 기반 연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

완도수목원, 정원관리사 양성 온힘

전라남도완도수목원이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원관리사 양성교육 기초과정을 운영해 1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고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은 해남, 영암, 완도, 진도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정원식물의 이해 △정원식물 관리 △ 정원 조성 방법 등 정원관리의 필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60시간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완도수목원은 2019년부터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8회 16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기초과정 수료생을 대상으로 심화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며,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정원 관련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을 채운 교육생은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소방,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운영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4일까지 초등학교 119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사진)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은 학교를 찾아가 다양한 재난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화재 대피요령, 119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 기초 화재안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열과 연기 발생 시 대피 체험도 포함된다. 특히 각종 장비와 영상·음향 장치를 갖춘 이동안전체험차량을 활용해 비상벨·발신기 작동, 화재 대피훈련 등 실제 상황에 가까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실감나게 안전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정상아 기자

광주 초등생, 전통시장에서 경제 배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1일 남광주시장에서 진행된 '전통시장 체험 교육'에 참여한 광주학강초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